

# 집값 폭등에 주택 유무 자산 격차 10배... 자산 중 9할은 부동산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2' 발표**  
**4년간 집값 세종 41%·서울 26.1% ↑**  
**자산 증가 속도, 소득 비해 두 배 빨라**

최근 몇 년 새 집값 폭등으로 주택을 1채라도 가진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자산 격차가 10배 수준까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별 소득 상·하위 10%의 월 평균 총소득 격차는 23배로, 자산보유액 기준 상·하위 10%의 격차(5.2배)보다 훨씬 컸다. 우리나라 가구의 총 자산 중 90%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며, 금융 자산은 10%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2'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인구, 노동, 주거, 소득·자산 등 영역별로 각계 전문가 의견과 주요 동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26.1%·대전 21.3% 순**

2018년 1월 대비 2021년 1월 주택 매매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매매가격 기준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세종시로 이 기간 동안 무려 40.1%가 올랐다. 이어 서울 26.1%, 대전 21.3%, 경기 17.8% 순으로 급등했다.  
 전세가격 변화도 매매가격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흐름이다.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한 세종(26.9%), 서울(14.7%), 대전(11.9%), 대구(10.3%), 경기(8.1%)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주택가격 변화가 가구의 자산 변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무주택임차가구의 순자산 증위액은 3390만원에서 4000만원

으로 610만원 증가했다.  
 1주택 자가 가구는 2억1000만원에서 2억 6500만원으로 5500만원 늘었고, 다주택 자가 가구는 5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이나 증가했다.  
 순자산 규모는 무주택임차가구 대비 1주택 가구는 6.2배에서 6.6배로, 다주택 가구는 15.6배에서 19.0배로 증가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주택 유무 순자산, 지역 따라 더 벌어져...서울 9.5배·지방 6.4배**

2018년 대비 2021년 기준 순자산 규모의 변화 흐름을 보면 주택 유무에 따른 자산 격차는 지역에 따라 더 벌어졌다.  
 서울의 경우 무주택 가구에 비해 1주택 가구는 6.5배에서 9.5배로, 다주택 가구는 16.0배에서 20.7배로 격차가 더 커졌다.  
 서울외의 수도권은 무주택 가구에 비해 1주택 가구는 6.7배에서 8.5배로, 다주택 가구는 15.6배에서 18.4배로 서울보다는 격차가 다소 줄었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무주택 가구에 비해 1주택 가구는 5.6배에서 6.4배로 격차 폭이 줄었지만 다주택 가구와는 12.7배에서 20.2배로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가격 급등을 경험한 2018년과 2021년 사이 무주택 가구와 자가 가구 간의 자산 격차가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보다 자산 더 빨리 늘었지만 자산보다 소득 상대 격차 더 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가구당 평균 소득은 4027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3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자산액은 가구당 평균 2억5120만원에서 4억1755만원으로 66.2% 늘었다. 소득보다 자산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2010년대 말부터 2021년까지 주택, 토지, 건물 등을 비롯하여 부동산 자산의 가격과 전월세 가격 등이 폭등한 영향이 컸기 때문인 것

으로 추정된다" 전했다.  
 소득 10분위와 1분위의 '소득과 보유자산액'의 상대적 분배격차를 살펴보면, 자산보다 소득의 상대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2020년 가구당 평균 소득은 고소득층 상위 10분위(1억5465만원)가 저소득층 하위 1분위(681만원)의 22.7배로 조사됐다.  
 평균 자산보유액은 상위 10분위(9억8824만원)가 하위 1분위(1억9018만원)의 5.2배로 소득에 비해 자산격차가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자산격차가 소득격차보다 작은 것은 생애를 통틀어 왕성하게 소득을 획득하는 연령대와 자산축적이 왕성하게 이뤄지는 연령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가구의 총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이 약 90%에 가까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금융자산 비중은 10% 정도로 상당히 낮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이 3분의 2 수준이고, 나머지는 전월세보증금으로 구성됐다.

최이슬기자

**◆집값 지속 상승...세종 41%·서울**

## 한 손에 쏙...야마하 초경량 블루투스 스피커 '더 큐브'

490g의 가벼운 무게·콤팩트한 크기



야마하무직코리아가 블루투스 스피커 더 큐브(THE CUBE) 'WS-B1A'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WS-B1A는 야마하의 블루투스 스피커 라인

중 가장 가벼운 초경량 모델이다. 가로 8.8cm, 높이 10cm로 한 뼀 안에 들 수 있다. 490g의 가벼운 무게로 방 안, 거실, 주방 모든 곳에서 휴대 가능하다.

스피커를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활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지문이 묻지 않는 실리콘 소재 사용, 감각적인 삼페인 골드 컬러와 모던한 디자인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이 제품은 악기 음색과 사람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재현하는 야마하의 하이파이(Hi-Fi)급 고퀄리티 사운드 기술로 각 음에서 전달하는 미세한 사운드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5.5cm 플레인지 대형 스피커 유닛으로 저·중·고음역대 소리가 깨끗하게 출력한다.  
 특히 아티스트 보컬을 더 선명하게 선사하는 '클리어 보이스' 기능을 사용하면 주변 소리와 사람 목소리를 자동으로 구분해 한층 또렷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다.  
 신제품은 편리한 무선 충전 방식과 USB C 타입의 유선 충전을 지원한다. 완전 충전 후 최대 12시간까지 재생 가능하다. IP67의 강력한 생활방수 성능도 갖춰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제품은 라이트 그레이, 카본 그레이, 베이직 블랙 총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권장 소비자가격은 19만9000원이다.  
 야마하무직코리아는 WS-B1A 출시를 기념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펀딩을 진행한다.

김재한기자



## 해태제과, 크리스마스 맞아 '얼초' 3종 출시

해태제과는 겨울 시즌 에디션으로 '얼초 해피 홀리데이즈'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초콜릿으로 산타클로스와 트리 등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얼초 해피 홀리데이즈는 초코 튜브 8개와 대형 용기 등으로 구성해 여럿이 초콜릿을 만들 수 있다.  
 해태는 '얼초 숲 꾸미기'와 '얼초 곤충젤리

만들기'를 함께 출시했다. 얼초 숲 꾸미기는 다람쥐와 고슴도치 등이 사는 초콜릿 숲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얼초 곤충젤리 만들기엔 자몽, 청포도, 레몬 등 젤리 분말이 들어있어 네가지 색으로 곤충 모양 젤리를 만들 수 있다.

이슬비기자

## G마켓, 크리스마스 할인전, ...1500개 상품 최대 70% 할인

**'소중한 일상의 기쁨: 크리스마스편' 프로모션**

G마켓이 오는 25일까지 '소중한 일상의 기쁨: 크리스마스편' 프로모션을 열고 각종 선물과 파티용품 최대 70% 할인에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G마켓과 옥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아이선풍기, 어른선풍기, 장식 푸드관 등 구매 목적에 맞게 총 3개의 쇼핑 테마관을 마련하고, 1500여개의 상품을 특가에 선보인다.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카카오톡이나 MMS 메시지로 상품을 바로 보낼 수 있다.

매일 5개씩 '오늘의 특가'도 선보인다. ▲장난감 완구 ▲디지털 가전 ▲패션 뷰티 ▲가공식품 ▲가구 인테리어 등 카테고리 별 MD가 엄선한 상품으로, 브랜드사 및 판매자와 제휴를 통해 파격적인 할인가에 마련했다. 선물 고르기가 고민인 소비자들에게 추천하는 코너다.  
 할인 쿠폰도 풍성하다. '장난감 유아동패션 10%쿠폰'은 최대 2만원까지 할인되고 매일 3회씩 제공한다. 최대 1만원까지 할인되는 '크리스마스 10%쿠폰'과 최대 5만원까지 할인되



는 '디지털 가전 7%쿠폰'은 행사 기간 내 총 2회씩 다운로드 가능하다.

뉴시스

## 1993년 오리지널 제품 재해석... '정관장 홍삼톤 오리진' 출시



KGC인삼공사가 창립 123주년을 맞아, 최초의 홍삼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홍삼톤 오리진'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품은 1993년 병으로 출시된 홍삼톤의 깊은 진한 기운을 현대인에 맞게 재해석한 오리지널 홍삼톤이다.  
 홍삼을 비롯해 작약, 당귀, 계지 등 10가지 부원료를 기존 홍삼톤 대비 고농축으로 배합한 점이 특징이다. 한 포에 50ml, 총 30포로 구성된 액상 파우치형이다.  
 홍삼톤은 정관장 최초의 복합 한방제품으로 1993년 출시 당시에는 병에 담겨 판매됐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파우치로 리뉴얼하며

섭취와 휴대 편의성을 높였다. 이후에도 프리미엄 제품인 '홍삼톤골드', 목 건강을 위한 '홍삼톤청' 등 라인업을 확장했다.  
 KGC인삼공사 박주연 브랜드부장은 "정관장 홍삼톤은 지난 30년간 정관장의 전통을 상징하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이번 신제품을 통해 홍삼 한잔으로 하루의 힘을 냈던 그때 그 가치가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니기자

## 휘발유 1400원대 하락...더 떨어질까?

휘발유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국제유가가 추가로 하락하면서 국내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끝나며 주유소 재고 부족 현상도 일단락돼 당분간 휘발유 가격은 하락 기조를 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 축소를 예고했고, 주요 산유국이 감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12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0당 1593.80원을 기록했다. 일일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0당 16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6월 말 이후 1년 6개월만이다. 대구 셀프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0일 전국 처음으로 1400원대에 진입했을 정도다.  
 국내 휘발유 가격 하락은 국제유가가 최근 큰 폭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던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 11일(현지시각) 기준 71.9달러로 떨어졌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안에 배럴당 60달러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지난 9일 끝나며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단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 기간 휘발유 재고가 부족해지며 가격을 제한했다. 휘발유 재고가 소진된 이른바 품절 주유소는 파업이 정점이었던 지

난 5일 전국 96곳에서 지난 11일 10곳으로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일부 주유소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소폭 올리는 일이 있었다"며 "공급이 정상화하면 가격 하락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휘발유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선 정부가 현재 37%인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5월부터 6월까지 인하폭을 30%로 올렸으며, 7월부터는 역대 최대인 37%를 적용하고 있다.  
 세계 2위 소비국이자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이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작하며 석유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깊은 수준의 경기 침체가 아닌 이상 배럴당 70달러대의 유가는 언더슈팅(단기 가격 하락) 상황"이라며 "내년 1분기 전 세계 석유 수급상 공급 부족 전망이 유혹하다"고 전했다.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수요 둔화 우려로 가격 하락 압력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중국의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수요 둔화가 완화되고, 주요 산유국(OPEC+) 감산과 겨울철 수요 증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따른 공급 차질은 가격 강세의 주 원인이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